

지역 소식통

권익현 부안군수 소통행정
백산 부추 농가찾아격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현장행정 일환으로 백산면 이소정(40)씨의 부추 재배농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를 격려했다.

이소정씨는 지난 2016년부터 감자와 수박을 재배하던 것은 보다 소득이 높은 부추로 작목을 전환해 지난 4월부터 생산하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소정씨는 "현재 부추 하우스를 8동 경작하고 있는데 향후 3동을 추가로 경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수확량 증가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안형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포장박스 지원 등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해결책은 항상 현장에 있고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찾을 수 있다"며 "소통행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랜선캠핑 개최

부안군은 오는 30~31일 모항해나루호텔에서 2020 부안 랜선캠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핑은 '캠핑(Camp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문채와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소셜벤처, 디자이너, 커뮤니티활동가, 공간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퍼실리테이터(중재와 조정역할)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문화·공간혁신화·상품기획·관광·공동체 등 5~6개의 팀으로 나눠 새로운 시작으로 부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탐험한 뒤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등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안군 도시재생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여가는 그룹미션을 수행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단풍철 코로나 방역 총력

정읍시, 대책 보고회... 내달 15일까지 방역 집중관리 내장산 방문 관광객 대상 실시간 발열 상태 점검 등

정읍시가 가을 단풍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역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놀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16일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경찰서와 소방서, 내장산국립공원 등 관련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본격적인 단풍철인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연자교와 매표소 사이에 발열 점검소를 설치해 내장산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

시간 발열 상태를 점검한다.

또 관광지 방역 관리 요원 32명을 선발해 마스크 착용과 우측통행,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장산 집단상가지구의 식당·상가를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와 살균 소독제를 지급하고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또, 감염 우려가 큰 대형버스에 대해 국립공원 내 주차를 금지하고, 매년 제4 주차장과 제5 주차장에서 월령교까지 운행하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한다.

단, 노약자 등을 위해 내장사 경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10명 이내 탑승, 사전 발열 체크, 명부 작성에 대해 감시원을 배치해 운행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매년 불

법행위로 정읍시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5대 근절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내장산 상가와 식당주를 대상으로 내장산 상인협회를 운영하고, 상호 상생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불법 노점상행위, 각설이 고성방가 등 고질적인 문제 속에 실추된 내장산 이미지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소도 설치·운영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의료가편으로 이송해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방역수칙을 지킨 덕분에 거리두기가 단계로 조정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이럴 때일수록 안전한 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난 15일 고창군 해리면은 동호해수욕장 진입 도로변 7.7km에 걸쳐 3쌍 파종 작업을 진행했다.

고창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진입도로변 갯씨 파종

최근 명품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해수욕장에 내년 봄 노란 갯꽃의 향연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고창군 해리면은 동호해수욕장 진입 도로변 7.7km에 걸쳐 갯씨 파종 작업을 진행했다.

내년 봄이면 동호해수욕장 진입도로에는 노란색 갯꽃과 유채꽃, 하얀 무꽃, 분홍빛 지운영꽃, 벚꽃 등 꽃잔치가 예상된다.

앞서 해리면은 동호해수욕장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금평 지구와 광승 지구에 올해보다 더 많은 105ha 면적의 유채꽃 경관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고창군 문인규 해리면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몸과 마음을 달래 줄 힐링 코스가 되고, 노을이 아름다운 동호해수욕장이 봄향기 가득 찬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갯의 생육과 개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불법 운행 자동차·건설기계 추방"

53대 직권 말소등록 등... 안전사고 피해자 줄이기 팔걸어

정읍시가 도로 교통안전사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자동차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5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 운행에 문제가 되는 건설기계 53대를 직권 말소등록했다.

직권 등록말소 대상은 1981년부터 2017년까지 37년간 등록된 308대의 건설기계이며, 정기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대당 최고 40만원)를 부과했다. 직권 말소등록 잔여분 255대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15일 직권 말소등록

할 계획이다.

단, 직권 말소등록 기준인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이번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울러 의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5종의 자동차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등 건설기계 673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로 불법 운영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일명 '비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운

행정지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징수한다.

전체자전거나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소유자에게 자동차 멸실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해 말소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멸실자동차 자진 신고 기간은 내달 15일까지이며, 멸실인정 차량은 자동차 관련 공과금 비과세 등 조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여성친화도시 정책"...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고창군이 지난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 전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양지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외항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유기상 군수는 "넉넉한 출산휴가과 육아 휴직, 유연근무제도 등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된 나라이고 여성친화도시이탈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로 고창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책이다"며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 이날 오후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시대를 조기 종식하자는 기원을 담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독서 마라톤 우수 완주자 시상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수여도'

정읍시가 책 읽는 도시 조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 온 시민들에 대한 시상을 통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읍시립도서관 지난 15일 전 시민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4회 책 읽기 마라톤대회 우수완주자 시상 및 책 읽는 가족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다.

책 읽기 마라톤은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시켜 2m를 책 1페이지로 환산해 설정한 독서량을 완주하는 독서대회다.

기간 내에 독서기록 일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완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책 읽기 마라톤대회에 총 170명이 참여하고 83명이 완주했다.

이번 책 읽기 마라톤대회에서는 김보현 이용자를 비롯한 4명(김운수, 송택상, 안정희, 유미경)의 우수완주자에게 정읍시장을 수여했다.

또, 학산중 김가현 학생 외에 4명(김건우, 김낙현, 김현수, 박시후)의 우수학생에게는 정읍교육지원청장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시립도서관은 지난 1년간 가족 회원들의 도서 대출기록과 도서

방문 횟수, 문화프로그램 참여 등을 분석해 우수 가족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 단위의 독서 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도서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읍시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추진하는 가족 독서 운동 캠페인이다.

올해 선정된 가족은 중앙도서관에서 유청현 가족, 신태인도서관에서 박주상 가족, 기적의 도서관에서 송부용 가족이다.

이번 수상자들과 독서 마라톤 완주자들에게는 정읍시도서관 특별회원으로 등록되며 내년 한 해 동안 도서관 대출권 수를 1회당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해 대출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유진섭 시장은 "많은 시민이 책 읽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독서 습관과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민들이 즐겨 찾고 행복한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